KIEP 북경사무소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한중경제포럼
제24-06호 2024년 12월 6일

새로운 세 가지 시기가 중첩된 중국경제 - 2024년 회고 및 2025년 전망

2024년 제6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새로운 세 가지 시기가 중첩된 중국경제
   -2024년 회고 및 2025년 전망
2. 일 시: 2024. 11. 28(목) 14:00~16:30
3. 발표자: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탕둬둬(汤铎铎) 주임

1. 대표적인 견해

❑ Why hasn't China rushed to bail out its economy? (장쥔, 2023.9.8)

- 중국경제의 침체는 이미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음.
  - ◦ 지난 3년 동안, 중국의 총수요는 국내 코로나19 방역정책과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해 뚜렷하게 약화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취하지 않았고, 이는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혼란을 주었음.
- 중국 지도부는 현재의 경제발전 상황을 잘 알고 있으나 그들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
  - ◦ 따라서 중국은 당장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현재의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신중히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전략은 일부 리스크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에 더욱 좋은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기도 함.
-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정부는 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데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고려를 반영함.

❑ China's economic paradox (Yuen Yuen Ang, 2024.9.4)

- ....., 중국은 떠오르는 초강대국으로 곧 세계를 주도할 국가이거나, 붕괴 직전에 있는 취약국가 중 하나임.
  - 이러한 모순된 견해는 중국경제에는 과학기술 번영과 성장 둔화가 병존한다는 한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음.
- 첨단기술 경제로의 전환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GDP 성장과 건전한 공공재정을 필요로 하고, 이는 정부가 산업정책과 노동자 교육에 투자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이러한 자원이 없다면, 전환은 사회적·경제적 분화를 심화시킬 수 있음.
- GDP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녹색 및 첨단기술 경제로 나아가고 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시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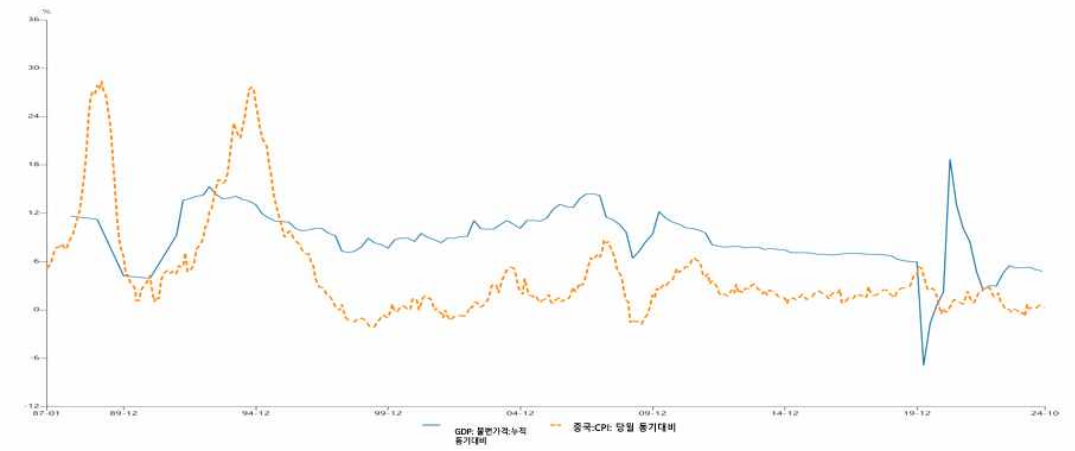
❑ China can beat back deflation (Michael Spence, 2024.11.8)

- 중국은 이미 외부수요가 아닌 국내수요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발전단계에 들어와 있으며, 매우 강력한 수출수요(외수)로도 비무역수요(내수)의 거대한 부족을 메울 수 없음.
- 중국의 성장 저해 요인은 주로 가계소비의 부족으로 인한 국내 총수요 부족을 반영함.
- 중국 내수 부족의 두 번째 원인은 민영기업의 투자 부족임.
- 과거 공공투자가 중국 총수요의 주요 원동력이었음. ……그러나 재정적 제약을 받는 지방정부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할 여력이 없으며, 이 때문에 투자 회복이 미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단순히 총수요 격차를 메우기 위해 과잉 투자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으며 중국 의사결정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음.
- 수출과 투자 중심의 성장모델에서 국내 소비와 혁신에 기반한 성장모델로의 전환은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의미함. 이러한 변화의 모든 요소가 동시에 완벽하게 작동된다면 그것이 더욱 놀라운 일임.
- 어쨌든 정책적 대응 조치는 이미 시행되고 있음.
  - 우선, 중국 정부는 새로운 거품을 유발하지 않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동시에 중국 정부도 민간과 국유 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국경제는 많은 중요한 우위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과학기술 및 창업 인재가 풍부하고 정부가 기술이 주도하는 구조적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 중국은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명확하고 정확한 정책을 통해 2~3년 이내에 성장세를 회복시킬 수 있음.

2. 경제 운행 데이터

❑ 중국의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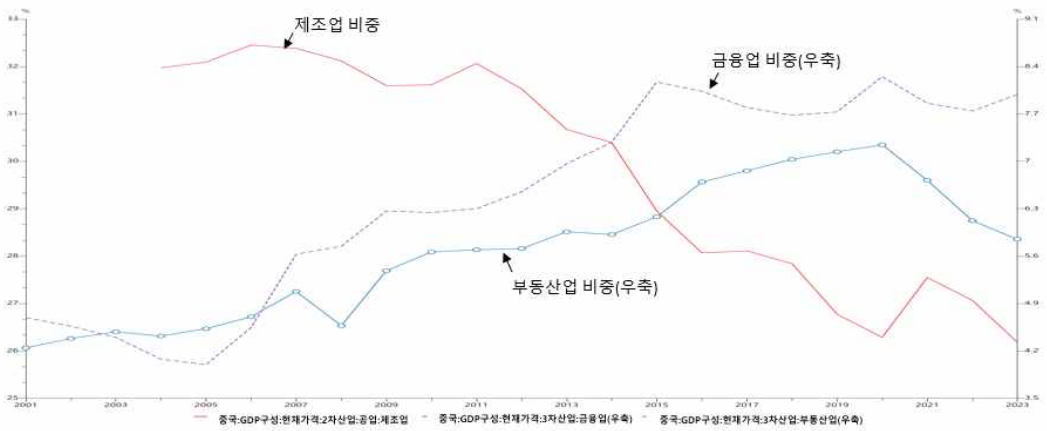
그림 1. 중국의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1987~2024)



- 중국의 경제성장은 2007년 3분기 최고치인 14.4%에서 2024년 3분기의 4.8%로 하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금융위기와 코로나19의 두 차례 큰 충격을 겪었음.
-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점차 높은 인플레이션의 위협에서 벗어났으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비교적 완만한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음.

❑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그림 2.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200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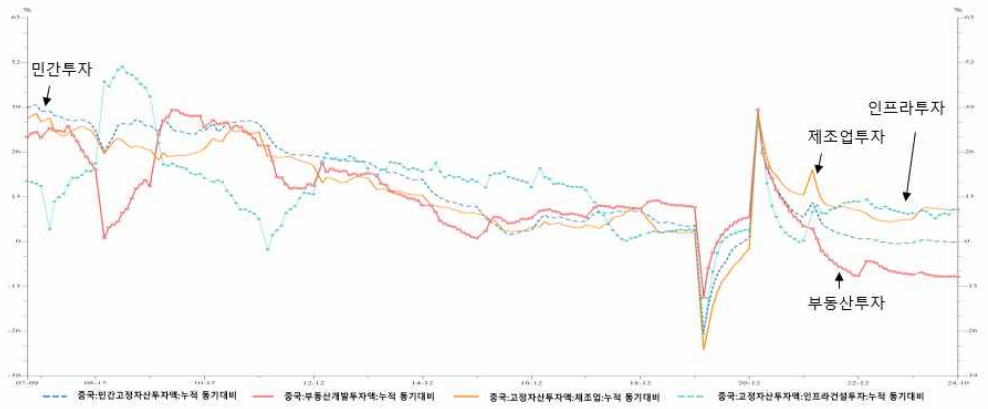


- 21세기 이후 중국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2006년의 32.5%에서 2023년에는 26.2%로 하락하였음.

- 21세기 이후 중국 부동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의 4.2%에서 2021년 최고치인 7.2%까지 상승했으며, 현재는 5.9%를 기록하고 있음.

❑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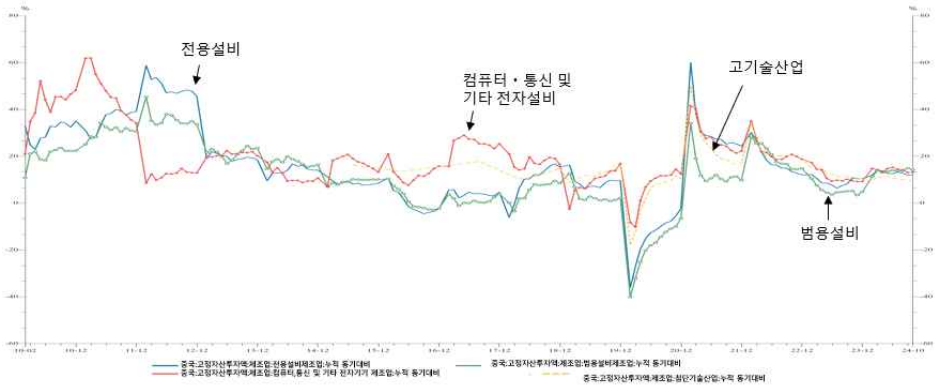
그림 3.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2007~'24)



-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증가율)는 뚜렷한 하락추세를 보이며, 2008년 전후 약 30%에서 2024년 10월 3.4%로 감소하였음.
- 이중 제조업투자와 인프라투자는 약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투자는 -10%, 민간투자 증가율은 0%를 기록하고 있음.

❑ 중국 첨단기술산업 고정자산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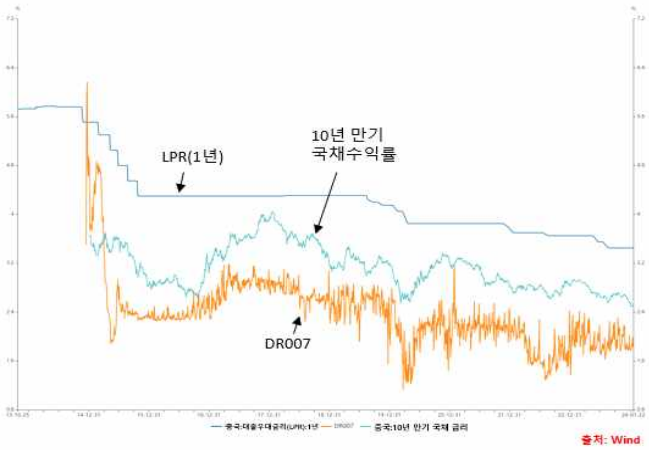
그림 4. 중국 첨단기술산업 고정자산투자(2010~'24)



- 코로나19가 끝난 후로부터 첨단기술산업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으며, 이는 신용대출 데이터에서도 확인될 수 있음.
- 제조업의 각 업종 중에서 범용설비, 전용설비, 컴퓨터·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등의 하위 업종 투자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금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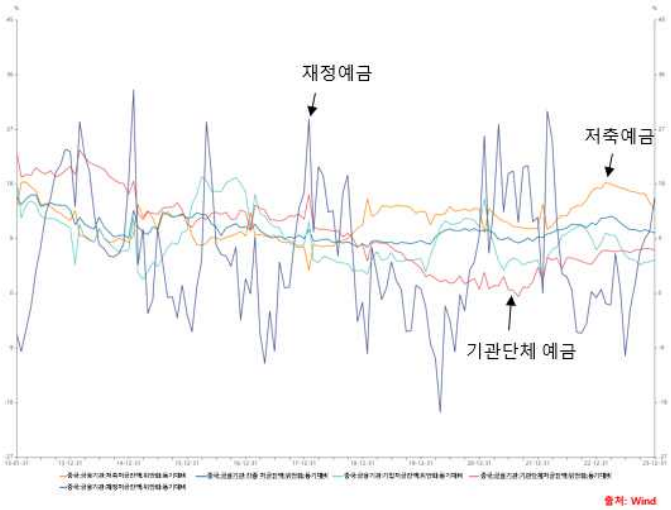
그림 5. 중국의 금리 수준



- LPR(대출우대금리), 10년 만기 국채 금리, DR007(7일물 금리)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약 4% 수준이며, 대형 국유기업의 대출금리는 2% 이하로 나타나고 있음.

❑ 중국 각종 예금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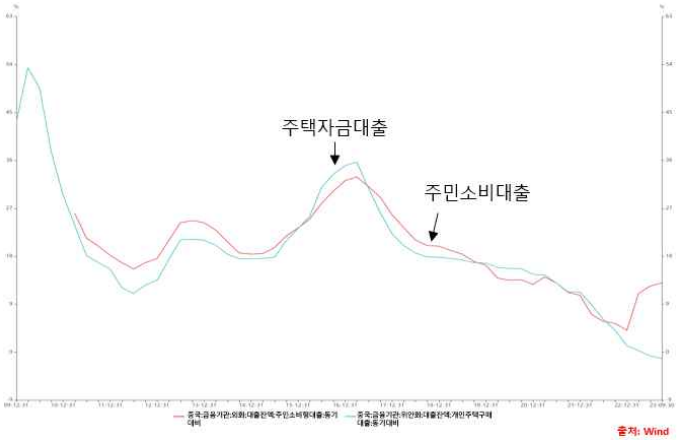
그림 6. 중국 각종 예금 증가율



- 가계저축 예금 증가율이 뚜렷하게 빨라지고 있음.
- 기업과 기관 단체의 예금 증가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재정예금은 변동폭이 비교적 큼.

❑ 중국 주민소비대출과 개인주택자금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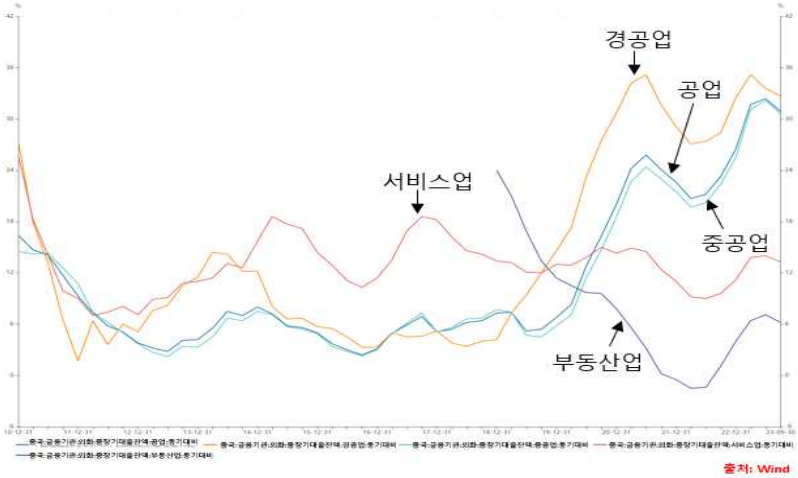
그림 7. 중국 주민소비대출과 개인주택자금대출



- 주택자금대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주택 판매도 침체를 겪고 있음.
- 주민소비대출은 최근에 반등이 있는데, 이는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호조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음.

❑ 중국 각 산업의 중장기 대출

그림 8. 중국 각 산업의 중장기 대출



- 공업, 제조업 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는데, 경공업이 중공업보다 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서비스업 대출 증가율이 코로나19 이전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부동산대출은 비교적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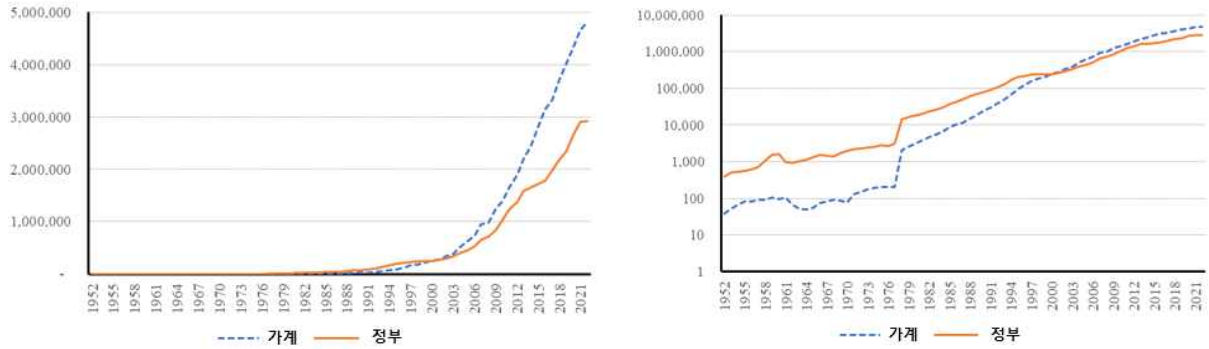
❑ 중국의 포용, 녹색 및 첨단기술제조업 대출

그림 9. 중국의 포용, 녹색 및 첨단기술제조업 대출

- 녹색 대출과 포용성 대출의 증가율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첨단기술 제조업 대출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중국 가계 및 정부의 부(財富)

그림 10. 중국 가계 및 정부의 재부(財富)(195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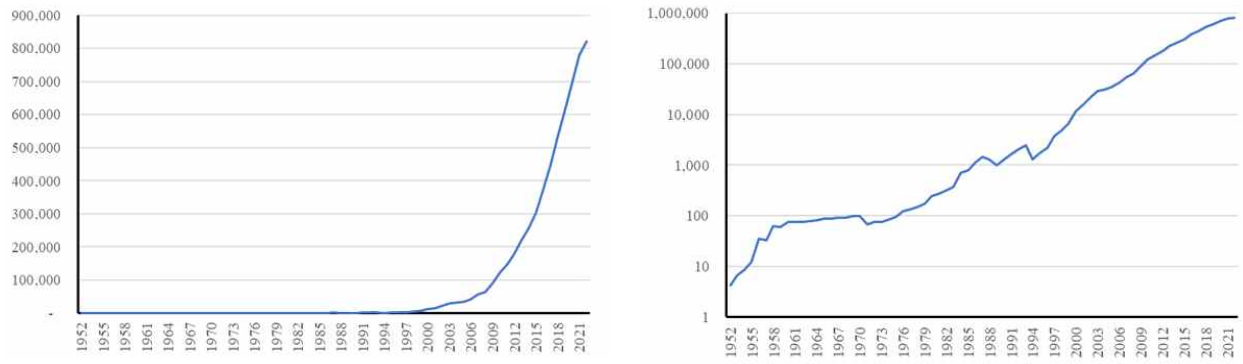


- CNBS 데이터에 따르면 1952년 중국 가계의 재부(財富)는 38억 위안으로 전국 총 재부의 6%를 차지했고, 1978년에는 2,114억 위안으로 총 재부의 10%를 차지했으며, 2022년에는 482조 위안으로 총 재부의 62%

를 차지했음.

❑ 중국의 가계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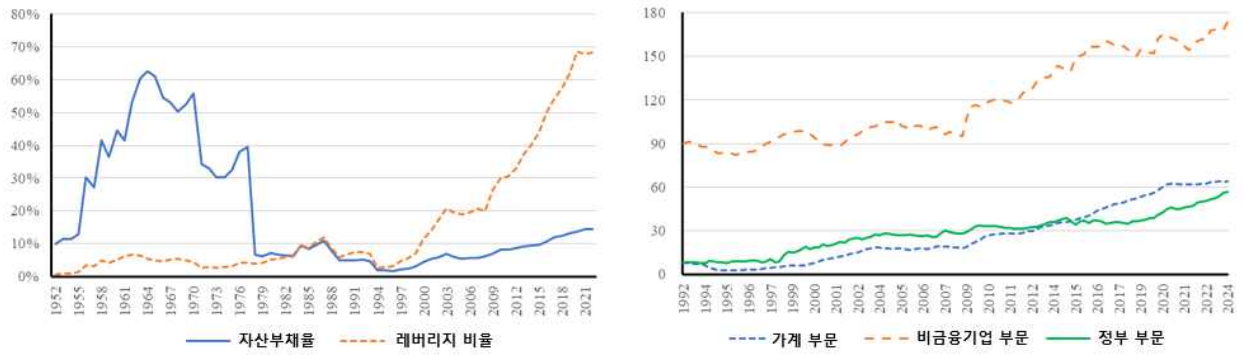
그림 11. 중국의 가계부채(1952~2022)



- 주민 재부(財富)의 축적은 부채의 증가와 함께 이루어짐.
- 1952년 중국의 가계부채는 4억 위안이고, 1978년과 2022년에는 각각 149억 위안, 82.2조 위안에 달했음.

❑ 중국의 부문별 레버리지 비율

그림 12. 중국의 부문별 레버리지 비율



- 중국의 가계부문의 레버리지 비율은 21세기 초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고, 2009년 이후부터 非금융 기업부문의 레버리지 비율이 급증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정부부문의 레버리지 비율도 다소 상승하였음.

❑ 소결

- 중국경제의 패러독스: 과학기술 번영과 경제성장 둔화가 동시에 존재함.
- 성장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내 총수요 부족이며, 내수 부족의 주요 원인은 가계소비 부족과 민간기업의 투자 부족에서 비롯됨.
- 성장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간의 매칭이 원활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이 아직 기존 산업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데 있음.
- 성장 부진의 또 다른 원인은 글로벌 경제환경의 악화와 불확실성의 증가임.
- 성장 부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민간부문에서의 디레버리징임.
  - 이는 막대한 재부의 축적, 금융업의 팽창, 그리고 금융시스템 복잡화의 결과이며,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처음으로 겪어 봄.
- 중국 거시경제 거버넌스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와 시장, 국내와 국외 간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음.

3. 정책 기조 및 정책 조치

❑ 2024년 경제기조

- 2023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온중구진, 이진촉온, 선립후파(稳中求进、以进促稳、先立后破) 견지
- 2024년 3월 양회 및 정부업무보고: 국내총생산(GDP) 목표성장률을 5% 내외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적절히 강도를 높이며 질적 제고와 정책효과의 증대를 거둬야 하고, 온건한 통화정책은 유연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해야 하고, 거시정책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강화해야 함.
- 2024년 6월, 리창 국무원 총리가 다롄 다보스 포럼에서의 강화: 고본배원(固本培元, 근본을 견고히 다짐)을 중시하여 경제발전의 기초적인 지원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 정책과 단기적 정책, 표면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동시에 파악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해야 함.
- 2024년 7월 20기 3중전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 및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을 통과시켰음.
- 2024년 9월,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6가지 '해야 할 일(要)'을 제기하였음.
  - 재정·통화정책의 역주기조절(逆周期调节, 단기적 경기조절정책) 강도를 높여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하고, 기층의 '3보'(三保, 기본적인 민생, 임금, 운전자금의 보장) 사업을 착실히 잘 수행해야 함.
  -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잘 발행하고 활용하여 정부 투자의 견인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

해야 하며,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강도 있는 금리 인하를 실시해야 함.

◦ 부동산시장의 하락을 방지하고 회복을 유도(止跌回稳)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주택에 대한 증설을 엄격히 통제하고 기존 재고를 최적화하며 품질을 높여야 하고, 또한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유휴 토지 재고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해야 함.

◦ 국민의 관심사에 부응하고, 주택구매 제한정책을 조정하며, 부동산대출 금리를 낮추고, 토지, 재정·세제, 금융 등 정책을 신속히 개선하여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 구축을 촉진함.

◦ 자본시장을 진작하기 위해 중장기 자금의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사회보험, 보험, 재테크 등 자금의 시장 진입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함.

◦ 성장기업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을 지지하고, 공모펀드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중소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 조치를 연구하고 도입해야 함.

❑ 2024년 9월 말부터 열린 4차례 기자회견

- 2024/09/24 국무원 신문판공실(国新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 지원을 통한 고품질 경제발전 관련 내용을 소개하였음.

◦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몇 가지 정책: △지급준비율과 정책 금리를 인하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기준금리의 하락을 유도함. △부동산대출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대출의 최소 계약금 비율을 통일함.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을 도입하여 주식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함.

※ 하나는 증권·펀드·보험회사 간 스왑 편의성(Securities, Funds and Insurance companies Swap Facility,SFISF)을 도입하여 해당 정책의 조건에 충족하는 증권사, 펀드사, 보험회사가 자산을 담보로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이를 통해 기관들의 자금조달능력과 주식매입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다른 하나는 주식 환매와 특별 재대출 확대로 은행이 상장기업과 주요 주주에게 대출을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주식의 환매와 확대 매입을 지지하는 것임.

- 2024/10/08 국무원 신문판공실(国新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패키지 증량정책의 시스템적 이행, 경제성장, 구조 개선 및 발전 추세 지속 호전'과 관련한 상항을 소개하였음.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몇 가지 정책: △첫째, 거시경제 정책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실행 △둘째, 내수를 한층 더 확대 △셋째, 기업 지원 강화

◦ 4가지 '견지': △목표 지향 견지 △문제 지향 견지 △시스템적 접근 견지 △장기적 정책과 단기적 정책을 결합하여 추진함을 견지

◦ 3가지 '더욱 중시': △경제발전의 질적 향상 더욱 중시 △실물경제와 경영주체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 더욱 중시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 더욱 중시

- 2024/10/12 국무원 신문판공실(国新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정책 역주기조절 강화 및 고품질 경제발전 촉진' 관련 상황을 소개하였음.

◦ 재정부에서 발표한 6개 측면의 일반적 정책: △재정지출 규모 확대 △세금 혜택 정책의 최적화 △국내 유효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확대 △기층 '3보'와 핵심영역에 대한 보장 강화 △기초 민생보장에 대해 더욱 강력히 지원 △지방정부 부채리스크 착실히 해소

◦ 맞춤형 증량 정책 조치: △정부부채 리스크 해결을 위한 지방 지원 강화, 채무 한도 확대, 음성채무 해소를 위한 지방 지원 △특별국채를 발행해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핵심 1급 자본을 보충함으로써 은행의 리스크 예방과 신용대출 공급능력 강화 △지방정부 특별채권, 특별자금, 세수정책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잘 활용하여 부동산시장의 하락 방지와 회복 유도(止跌企稳)를 촉진하는 데 지원 △전체적인 소비능력을 향상하도록 주요 계층에 대한 보장 강도 강화

- 2024/10/17 국무원 신문판공실(国新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소개하였음.

◦ 주택건설부에서 정책 내용을 4가지 취소, 4가지 감소, 2가지 증가로 요약했음.

◦ 4가지 취소: 구매 제한, 판매 제한, 가격 제한, 일반 주택과 非일반 주택의 기준

◦ 4가지 감소: 주택구매공적자금 이자, 초기 계약금 비율, 주택 구매 후 납부 중인 대출금의 이자, '구주택 팔고 신주택 구입' 시의 세금부담 등을 감소함으로써 주민들의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춤.

◦ 2가지 증가: △하나는 철거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货币化安置)으로 성중촌(城中村) 개조와 위험주택개조 100만 채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임. △다른 하나는 연말까지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대해 신용대출규모를 4조 위안까지 늘리는 것임.

※ 도시 부동산 용자 조정 메커니즘은 모든 부동산의 합격 프로젝트를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고,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융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업은행이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대출 지원을 줘야 함(应进尽进, 应贷尽贷).

4. 분석 및 전망

❑ '3개 시기의 중첩'에서 '새로운 3개 시기의 중첩'으로

- 3개 시기의 중첩: △성장 속도 전환기 △구조조정 진통기 △전기(前期) 부양 정책 소화기 (2013년)
- 새로운 3개 시기의 중첩: △성장 속도 전환기 △구조조정 진통기 △외부 충격 빈발기 (〈외부 충격 빈발기 하의 거시경제정책 공간〉, 2022년)
- 새로운 3개의 시기가 겹쳐짐: △발전단계의 전환기 △외부 충격 빈발기 △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 시기

❑ '새로운 3개의 시기가 겹쳐진' 배경에서의 정책 선택

- 발전단계의 전환기

◦ 단기적인 경제사이클 변동에 대한 관심도를 낮추고, 구조적 전환과 중장기 성장에 중점을 두며, 신산업과 구산업의 전환은 선립후파(先立后破)를 하여 불필요한 변동을 방지해야 함.

- 외부충격 빈발기

◦ 경제 회복력의 중요성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고, 정부와 그의 경제정책은 경제 회복력의 중요한 원천이며, 정책 공간은 정부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자 역량의 비축임.

◦ 온중구진(稳中求进)의 기본 기조를 견지해야 함.

-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 시기

◦ 국유기업과 정부부문에서는 레버리지를 확대하며, 재정(국유기업)이 주도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 이진촉온(以进促稳)은 전략적·단계적이고 적절하게 실행해야 하며, 이를 국진민퇴(国进民退, 정부의 역할을 늘리고 민간기업을 서서히 퇴장시켜야 한다는 주장)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2025년 전망

- 2024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4.8~5.0% 사이로 예측됨.
- 중국의 이번 금융사이클의 하향 주기가 이미 7년 동안 지속해 왔으며, 민간부문은 향후 2~3년 이내에 대차대조표의 정비를 완성할 것이고, 금융사이클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새로운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
-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중요한 시기임.
- 자본시장, 부동산시장, 인플레이션은 향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단계적 지표임.

질의응답(Q&A):

Q 1. 제시해 주신 발전단계의 전환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성장 속도가 상승하는 건지? 성장 속도가 하락하는 건지? 성장 속도가 무의미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함.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제성장의 규모와 속도가 일자리 창출, 고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그리고 가계 소득 부분과도 관련성이 크다 보니 저희가 숫자, 경제성장 규모, 속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 같음. 그래서 그러한 경제성장의 스케일과 발전단계의 전환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함.

A 1. 제가 말씀드린 이 '발전단계의 전환기'는 과거 중국의 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으로 진입했다는 의미임. 개혁개방 시기에 중국 경제성장률은 10% 가까이였고, 중고속성장은 보통 6%이데, 지금은 6%보다 낮은 4.8% 혹은 5% 수준임.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직관적인 것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임.

Q 2. 2025년도 경제성장률은 어느 수준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기존에 생각했던 그 경제성장률에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건지에 대해 궁금함.

A 2. 제가 보기에는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함. 그래서 2025년의 GDP는 높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5% 정도인 것 같음. 2025년 3월 양회 때의 GDP 목표치 설정도 5% 정도로 설정할 것 같다고 봄. 내년의 경제성장은 최대한 4.8~5.2% 정도로 유지해야 하고, 4.8% 이하로 떨어지면 또 문제가 됨.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음.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예측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중국 경제에 0.7%p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전반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영향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함. 그래서 저는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집중해 왔음. 그래서 과연 중국 GDP에 몇 퍼센트포인트 정도 영향 줄 것인지에 대한 이 수치의 예측이 매우 어려움.

Q 3. 실업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음. 저희가 계속 경제 내용만 얘기했지만, 경제성장률 올해 예측이 4.8~5.0%인데 저는 전혀 낮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함. 근데 계속 문제 되는 것은 청년실업률이 추계 기준을 변경하고 나서도 계속 높은 수준에 있음. 이 청년실업률이 계속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음. 산업구조와 취업구조의 매칭이 불균형해져서 생기는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음.

A 3. 청년실업률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함. 최근 몇 년 동안 청년실업률 문제는 중국에서 핫이슈와 논의 거리가 되었음. 우선 중국통계국이 작년에 서너 달 동안 청년실업률 발표를 중단했다가 다시 발표한 적이 있었음. 이 사건도 약간의 영향을 일으켰음. 중단 전 수치가 매우 나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치가 나빠서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나중에야 중단 이유가 통계의 추계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음. 청년실업 문제는 다양한 측면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

함. 제 생각에는 주로 세 가지 원인으로 요약해 봤음. 첫 번째는 주기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는 구조조정 및 전환 관련 원인이며, 마지막은 산업 발전에 특징으로 볼 수 있음. 우선 주기적인 요인에 대한 해석은 매우 간단함. 제가 보기에는 최근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실업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논리임. 두 번째 요인인 산업의 전환인데, 즉 신산업과 구산업의 매칭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임.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중국의 경제발전 또는 산업 발전 과정에서 디디(滴滴) 운전사, 배달원, 스트리머(主播)과 같은 새로운 업태가 많이 생겨났다는 것임. 한국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현재 스트리머는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았고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 1,500만 명이나 된다고 밝혀졌음.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상위권 스트리머는 소수이고, 대부분은 한 달에 몇 천 위안 정도만 버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머라는 업종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특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업종의 종사자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이러한 업종들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라이브 방송을 몇 개월 정도 하다 그만두고, 또는 누군가가 디디(滴滴)를 하다가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음. 매우 불안정하지만, 생활이 어려울 때는 조금이나마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이처럼 안정적이지 않으면서도 유연한 고용 형태는 중국의 실업률 통계 시스템에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함. 마지막으로 중국의 가정환경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함. 요즘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진 것 같음.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2~3년 정도 공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7~8년까지 공부하는 케이스도 있음. 이는 가정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이러한 사람들도 청년 실업 통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현재 상황은 매우 복잡함. 결론적으로 청년실업률은 중국의 다양한 사회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교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통계 및 연구 분야에서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Q 4.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음. 첫 번째는 이번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중국 전인대 상무위에서 지방정부 부채 해소를 위한 10조 위안에 상당하는 재정지원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제가 사전에 인지하기로는 당초에 소비 진작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 한 6조 위안 정도 재정 지원 같은 시장의 예측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발표되지 않았음. 그래서 지방정부 부채에만 오로지 10조 위안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음. 혹시 12월 경제공작회의나 내년도 양회에서 부동산이나 소비 진작책이 추가로 발표될지 궁금함.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임. 중국의 부동산시장이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최근 10월에 주택 가격 추이를 보니까 조금의 회복 조짐이 보인 것 같음. 예를 들어 70개 도시 신규 주택 판매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하락한 것은 동일하나, 그 하락폭이 조금 줄었다든지 1선 도시의 중고주택 판매 가격이 일부 좀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어서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음. 그래서 10월 그 지표의 변화가 향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부동산의 저점에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박사님의 견해를 궁금함.

A 4.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하겠음. 이 문제에 대한 제 이해는 지방정부 현재의 부채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음. 하지만 이 정책의 발표는 현재에도 20세기 90년대의 중국의 '삼각채무(三角债)'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즉,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기업, 특히 민영기업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임. 따라서 저는 이 10조 위안 규모의 부채 해소 정책의 주된 목적

이 지방정부가 기업, 특히 민영기업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이를 통해 민간 경제의 투자와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함.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정책의 내용임. 이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함.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중국의 거시경제 운영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임.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끊임없는 힘겨루기가 존재한다는 것임. 이번 힘겨루기에서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신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무리한 투자와 신용 대출 등 과거의 과도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압박하고 있음. 물론 지방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중앙정부에 반하여 자신들의 과거 부채와 투자를 중앙정부의 자금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임. 이러한 복잡한 힘겨루기는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다른 나라의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중국에서는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중국의 거시경제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 간의 힘겨루기로 보는 것임. 예를 들어, 2조 위안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기 부양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면, 2년 동안 6조 위안을 투입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임. 이러한 주장 뒤에는 각기 다른 이해관계 집단이 존재함. 하지만 중앙정부는 자체적인 이해관계나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집단의 주장만을 받아들이지는 않음.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모든 집단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도록 타협점을 찾아야 하며, 동시에 각 집단이 책임도 분담해야 함. 저는 중앙정부가 이러한 밸런스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현재 이를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 집단 간의 힘겨루기로 볼 수 있음. 중국 부동산에 대한 3가지 결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함. 첫째, 중국의 1선 도시, 특히 북경, 상해, 광저우, 선전은 주택 가치가 유지될 것임. 왜냐하면 이러한 도시들은 높은 가치의 의료 및 교육 자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그래서 높은 주택 가치가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락할 여지가 많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둘째, 중국 부동산 시장의 발전단계는 이미 지나갔음. 21세기 초와 같은 급격한 성장은 더 이상 나타나기가 어렵고, 향후 부동산시장은 상대적으로 적정한 규모 혹은 작은 규모로 안정될 것임. 셋째, 중국경제에서 부동산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 것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과거와 같지 않을 것임. 이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제 이해이고, 저는 부동산이 여전히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생각하며, 특히 주택 가격은 거시경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음.

Q 5. 자료 중에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국진민퇴(国进民退)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전적으로 이에 동의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년에 중국 재정정책의 강도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새로운 세 개의 시기가 겹친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민간부문 즉 가계와 민간기업 투자로 돈이 그렇게 흘러나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 같음.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정책을 펼쳤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년에 민간 부문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또한 그렇게 되기 어렵다면 과연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지 궁금함.

A 5. 현재 민간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보통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시장과 학계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제안하고 있음. 만약 중국 역시 다른 제약 조건이 없었다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을 것임. 하지만 중국은 현재 내외부적으로 전환의 제약에 직면해 있어 정책적인 환경이 매우 묘함. 특히 레버리지 감축은 기업과 가계가 스스로 대차대조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는 다른 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므로 주로 보조하는 지원 역할을 하고 있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상

황에서 2017년부터 시작된 레버리지 감축이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다면 대략 2027년까지 이어지면서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 측면도 역시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개입을 안 하고 있음. 이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시각임.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장쥔 선생님의 'Why hasn't China rushed to bail out its economy?'라는 글을 추천해 드림. 저는 이 글에 나온 전반적인 내용에 동의하고, 이는 중국경제에 대한 저의 견해이기도 함.

Q 6. 자료집 20페이지 보면 레버리지 비율 부분에서 주민부문, 비금융기업 부문, 그리고 정부부문을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주민부문과 정부부문보다는 비금융기업 부문의 부채율이 많이 는 것 같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비금융 기업 부문에는 저희가 아는 순수한 민영기업도 있지만,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 또한 제가 알기로는 그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이 대부분 부채 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궁금함. 맞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 부분에서 각각 분류해서 따로 분석해 줘야 좀 명확하다고 생각함.

A 6. 비금융기업 부문은 크게 국유기업, 민영기업, 지방정부 투자 플랫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하지만 현재 민영기업 부분을 명확히 분리할 수 있는 추계 기준이 없어 민영기업의 비중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기 어려움. 다만, 민영기업의 비중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됨. 많은 사람들이 비금융기업 부문의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를 궁금해하는데, 그 이유는 지방정부의 음성채무가 비금융기업 부문의 부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하지만 현재 중국의 상황에서 지방정부 부채와 융자 플랫폼 부채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함. 우선적으로는 민영기업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더욱 시급함. 따라서 선생님의 의견은 매우 전문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함.

Q 7. 맨 첫 번째 주기인 발전단계의 전환기에 대해 여쭤보려고 함. 이 주기 변화는 사실 나머지 두 주기와는 조금 다르게 중국만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아니라 국가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말도 있듯이 어느 국가든 한 번쯤은 거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자 대단히 도전적인 문제라고 생각됨. 그리고 이 전환기는 분명히 언젠가 나타날 것임. 이러한 전환기가 어느 정도 전환이 일어날 것인지? 전환에 대한 전망이 어떠신지? 그리고 중국이 이 전환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가 궁금함.

A 7. 현재 이 전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현재 중국의 많은 산업은 구조 전환이 시급한 단계에 접어들었음.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산업과 과거의 대외무역 산업을 들 수 있음. 그러나 어느 정도 발전되고 1인당 GDP가 증가하면서 이와 같은 산업은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려움. 혹은 산업화나 도시화가 어느 정도 발전되면서 발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 현재 중국의 산업 발전은 '고품질발전(高质量发展)' 또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으로 요약할 수 있음. 전반적으로 보면 혁신을 통한 발전은 주된 특정 중 하나임. 특히 중국의 녹색산업과 첨단 기술 산업이 모두 혁신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 산업망의 상위를 차지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는 과거 중국이 늘 담당해 왔던 산업망 하단에 있는 노동집약형 부문에서 벗어나 고임금, 고생산성 부문으로 전환해야 1인당 GDP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음. 이러한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첫째, 가계 부문 재부 증가에 따라 거시경제 조정 과정에서 가계 부문의 중요성도 커졌음. 둘째,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기존의 정책 체계도 전환할 필요도 생겼음.